

전통선 중흥 서암스님 특별법회 **지상세계**

세상이 부처님 품안



◇ 10일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열린 특별법회에서 서암스님은 '개인의 수행이 사회를 맑히는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 우주의 출렁이는 그 진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진리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있게 하는 생명의 진리이고 불법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도 그 속에서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밤에 온갖 꿈을 꾸다 하여도 깨고 나면 한바탕의 그림자임이 분명하지요. 이렇게 꿈 속의 모습이 모두 그림자인 줄 알고 좋고 나쁜 건계는 사라졌지만 꿈을 꾸던 그 주인공은 내내 근원이 되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물건은 물 한 방울도 없지 않은 것이 만법의 이치입니다. 오늘날에는 철학이나 과학도 '물질불변론(질량불변의 법칙)'이라 하여 물질은 없어지

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물이 먼지보다 작은 가루로 부수어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되었다 해도 없어진 것이 아니고, 모양과 위치만 바꾸어 우주공간에 퍼 있다거나 인젠가는 또 인연따라 모이고 또다시 흩어졌다가 모여집니다.

하찮은 이런 물질도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소소(昭昭)하게 울고 웃고 온갖 것을 판단하는 이 역력한 주인공이 없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깨치지 못하면 귀신이라도 되어 해매고, 자기 업에 따라 새나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지옥 천당의 육도 중생에 틀락날락 할지언정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생멸하는 법칙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허깨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다생에 익힌 나쁜 습의 뿌리 제거하면 빛나는 자기와 만나 이타행 저절로 돼요"

그것이 공부입니다. 나쁜 습관 제거하면 저절로 빛나는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자기를 보게 되면 참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참선을 한 시간 하는 것이 백년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것도 그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 분명히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에 끌리지 말고 해야 할 일, 안해야 할 일을 잘 살펴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은 뭘 하든지 자기 인격이 수양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 마땅한 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책임을 놓치지 않으면 빛나는 정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연젠가는 성불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시간 익히고 두 시간 익히고 자꾸 익히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훌륭한 자기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오뉴월 한더위에 맑을 흘리며 앉아서 정진할 때도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흰기 보입니다. 노력한 시간만큼 자기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지요.

어떤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뜻이 흔들리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말 말이 행동 행동이 남을 도와주는 행동밖에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법문하는 이곳 선학원은 경허, 만공, 만해, 용성 스님 등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일제하 당시 미나마치 지로 총독이 한국 불교를 속화시켜 도인(道人)의 출현을 막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기에 하기 위해 31본사회의를 열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때 회의석상에서 마곡사 대표로 나온 만공스님이 총독의 의도를 미리 알고 백력같이 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만공스님의 일갈에 혼비백산해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어 만공스님은 "전직 테러우찌 총독이 한국의 스님들을 괴롭혀 아귀지옥에서 무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먼저 그를 구출하시오"라며 일본의 음모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머 거사와 같은 참 도인의 사자후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혼돈도 이 어른들의 정신을 본받아 다시 등불을 밝힌다면 일거에 물리칠 수 있고 새로운 불교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운동은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각성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국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에는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해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구해 줄 것인가. 불교의 자비사상이 아니고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교가 성할 때는 나라가 상하고, 불교가 쇠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오늘날도 불자들이 앞장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린다면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정토를 건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두렁 밑에 잠시 앉아서 한 생각을 내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곳이 절이며 그것이 불교입니다. 천백억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흥인인간, 이화세계를 가르친 단군 조상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머거사가 중생의 병을 대신 앓듯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정진한다면 불국정토가 바로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리: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불교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종교 한계도 없는 마음 한번 잘 쓰면 원수도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그것이 공부입니다. 나쁜 습관 제거하면 저절로 빛나는 자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자기를 보게 되면 참으로 편하고 좋습니다. 참선을 한 시간 하는 것이 백년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것도 그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찾아 분명히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심에 끌리지 말고 해야 할 일, 안해야 할 일을 잘 살펴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책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은 뭘 하든지 자기 인격이 수양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는 마땅한 지입니다. 그렇게 자기 책임을 놓치지 않으면 빛나는 정신세계가 펼쳐집니다.

연젠가는 성불하겠다는 일념으로 한 시간 익히고 두 시간 익히고 자꾸 익히면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훌륭한 자기 인생관이 형성됩니다. 오뉴월 한더위에 맑을 흘리며 앉아서 정진할 때도 희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흰기 보입니다. 노력한 시간만큼 자기가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체득하게 되지요.

어떤 어려움의 파도가 밀려와도 뜻이 흔들리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리에 어긋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말 말이 행동 행동이 남을 도와주는 행동밖에 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 법문하는 이곳 선학원은 경허, 만공, 만해, 용성 스님 등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님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유서깊은 곳입니다. 일제하 당시 미나마치 지로 총독이 한국 불교를 속화시켜 도인(道人)의 출현을 막고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가기에 하기 위해 31본사회의를 열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때 회의석상에서 마곡사 대표로 나온 만공스님이 총독의 의도를 미리 알고 백력같이 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만공스님의 일갈에 혼비백산해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어 만공스님은 "전직 테러우찌 총독이 한국의 스님들을 괴롭혀 아귀지옥에서 무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먼저 그를 구출하시오"라며 일본의 음모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유머 거사와 같은 참 도인의 사자후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불교의 혼돈도 이 어른들의 정신을 본받아 다시 등불을 밝힌다면 일거에 물리칠 수 있고 새로운 불교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불교운동은 마음의 평정을 구하는 각성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 국토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웃에는 정신이 빠진 사람들이 해매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가 구해 줄 것인가. 불교의 자비사상이 아니고는 이 사회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불교가 성할 때는 나라가 상하고, 불교가 쇠하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오늘날도 불자들이 앞장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린다면 하루아침에 평화로운 정토를 건설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눈두렁 밑에 잠시 앉아서 한 생각을 내면 그 사람이 스님이고 그곳이 절이며 그것이 불교입니다. 천백억 부처님의 화신으로서 흥인인간, 이화세계를 가르친 단군 조상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유머거사가 중생의 병을 대신 앓듯이 동체대비의 정신으로 정진한다면 불국정토가 바로 이 땅에 펼쳐질 것입니다.

정리: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현덕

(전지신문 뉴미디어 국장)

일기는 어렵고 읽기는 쉬운데 세월이라고 한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지만 세월의 나이가 더할 수록 내 모습은 불쑥하고, 초라해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세월은 항상 내편이려니 생각하면 어리석다. 하지만 나도 얼마 전까지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97년 6월 5일 토요일 오후, 퇴근후 밖에 나갔던 나는 의식을 잃고 길바닥에 쓰러졌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 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보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해 다시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제발 목숨만 구해 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아내에게 의뢰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의식을 회복해도 정상인 생활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이었을까. 나는 24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의뢰된 "기적에 가까

에 했다. 질 식구들은 밤 9시면 모두 잠자리에 들었고, 이른날 새벽 3시 30분이면 에누리 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나에게 밤 9시는 퇴근해 TV종합뉴스를 볼 시간이고, 새벽 5시면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시간이다. 첫날밤 낯선 환경에 잠을 못이루고, 늦게까지 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는데 했는데 도량석에 쓰러졌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닌 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보냈으나 의식을 찾지 못해 다시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제발 목숨만 구해 달라"고 울며 매달리는 아내에게 의뢰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고, 설사 의식을 회복해도 정상인 생활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피력 덕분이었을까. 나는 24시간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의뢰된 "기적에 가까

사선넘어 길상암서 새 세상 체험 '불생불멸' 새기며 매일 3회 예불

다"며 수행일의 요양을 권했다. 회사의 배려로 병가를 받은 나는 가까운 분의 소개로 해인사 길상암에서 그해 여름 요양생활을 했다. 아내와 함께 찾은 길상암은 어릴적 어머니 치마폭처럼 포근하고 낯설지 않았다.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名利)에 쫓겨 내 영혼을 정갈하게 씻어 주었다. 공양후 스님이 주시는 차를 마시며 듣는 법문은 내 삶의 큰 양식으로 차곡차곡 마음속에 저장되어 갔다. 스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이 수없이 많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불생

것 처럼 아득한 느낌이었다. 당시 주지님 말씀은 "모든 게 인연이니 마음편하게 지내라"며 밤 하나를 내 주셨다. 스님은 80년대 초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후 길상암에서 열불과 함께 자비행을 실천해 온 당대 최고의 열불승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절생활은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속세생활이 지치면 "조용한 절에 가서 며칠 쉼 쉬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가끔 듣는다. 하지만 이는 서울에 가보지도 않고 "남대문에 문지방이 있다"며 우기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선 하루 세차례씩 예불에 참석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새벽 4시와 낮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6시에 예불을 드렸다. 공양도 새벽 5시, 낮 11시 30분, 저녁 5시

불멸(不生不滅)"이라고 말씀하셨다. 죽고 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며 생과 사가 같다는 것이었다. 오직 윤회할 뿐이라고 하셨다. 전생의 인연따라 내가 태어난 것이며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 영원한 해탈의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스님의 엄격한 수행자세와 자비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항상 정진하는 모습이었으며, 예불시간에 늦게 나 빠지는 일을 보지 못했다. 그 바람에 나도 예불에 한탄도 불참한 적이 없다. 칼날위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으면 곧 수행자가 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중대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입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개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막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집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문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 둘째 집안의 현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氣)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방마다 걸었던것인 동안을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가사의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가 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괘의 상경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답다라니의 신비
-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답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답다라니 처방비법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내후 신생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